

답에 32%의 인지를 나타냈다.

10. 의무실의 보건사업 제공에 대한 시기는 환경위생의 개선 및 지도에 37.5%, 복지 후생시설의 개선에 21.3%의 시기를 나타냈다.
11. 조사대상자의 94.4%가 1건 이상의 자각증상을 호소했다.
12. 평균 증상 호소수는 남·녀별 각각 5.8건, 6.9건으로서 1% 유의수준으로 여학생의 증상 호소수가 많았다. ($p < 0.01$)
13. 산업장 의무실 유무에 따른 증상 호소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14. 최다증상 호소수를 나타내는 증상으로는 감기몸살, 심한 피로, 위장장애, 두통, 우울의 순이었다.
15. 증상호소로 근무에 지장을 받아 조퇴나 결근을 한 비율은 18%였다.
16. 호소 증상의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이용정도는 “아무데도 안갔다”가 66.6%, 약국이용이 20.0%, 산업장 의무실의 이용이 6.0%였다.
17. 산업장 의무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가 59.1%, “다른 곳이 이용하기 편리하여”가 13.2%, “의무실 치료가 믿을만 하지 못하여”가 6.1%였다.
18. 산업장 의무실 방문시 치료·상담을 시행한 보건인력은 간호원이 88.1%였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근로청소년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증상 호소가 많았고,

둘째, 이들 증상에 대한 처리방법이 적절하지 못함을 볼 수 있으며,

셋째, 산업장내의 의무실의 사업활동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 근로청소년들의 보건관리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지며 특히 이를 위해 산업장 의무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사업장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보건 제32권, 8월호, 1986년

우 명 숙

본 연구는 1986년 2월 26일부터 동년 4월 2일까지 서울 시내 사업장중 보건담당자의 자격이 간호원의 면허소지자이어야 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327개소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인 289개소를 조사하여 이에 적절한 응답을 한 104개소의 사업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보건담당자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담당자의 자격별 사업자에 관한 제 특성,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의 선임실태 및 사업주의 근

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도, 사업장 업종별 건강관리 실태와 보건담당자의 자격 및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도별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보건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도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보건관계 문헌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립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chi - square test 및 ANOVA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담당자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담당자는 여자가 71.2%로 남자보다 많았고, 25세~29세 미만 군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인 군이 51.9%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력은 간호전문대학 졸업군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건담당자의 자격상태는 간호원 55.8%, 일반요원 31.7%, 간호보조원이 12.5% 순이었으며, 현 근무경력은 1년~3년 미만군이 42.3%로 가장 높았다.

2) 보건담당자의 자격별 사업장에 관한 제 특성

보건담당자의 자격별 사업장의 규모 ($\chi^2=22.031$, $df=6$, $p=.001$), 의무실 하루 이용 환자수 ($\chi^2=41.954$, $df=10$, $p=.000$)와 월수입 ($\chi^2=53.771$, $df=10$,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건담당자의 자격별 직업에 관한 만족정도 ($\chi^2=4.275$, $df=6$, $p=.640$)와 의무실 연간 예산에 관한 관심정도 ($\chi^2=11.706$, $df=6$, $p=.06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의 선임실태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의 선임 ($\chi^2=22.321$, $df=14$, $p=.049$)과 보건담당자 선임 실태 ($\chi^2=26.281$, $df=14$, $p=.02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사업장 업종별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도

사업장 업종별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16.230$, $df=14$, $p=.300$)

5) 사업장 업종별 건강관리 실태

① 사업장 업종별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chi^2=14.085$, $df=7$, $p=.049$) 특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chi^2=23.577$, $df=7$, $p=.001$)와 특수건강진단 실시 적용정도 ($\chi^2=44.363$, $df=28$, $p=.02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보건담당자의 자격별 건강관리 업무실태

보건담당자의 자격별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계속관리 ($F=0.968$, $df=2/101$, p

=.009), 예방접종($F = 3.312$, $df = 2/101$, $p = .041$) 및 보건교육 실시정도($F = 4.218$, $df = 2/101$, $p = .01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건담당자의 자격별 사업계획 참여도($F = .201$, $df = 2/101$, $p = .818$)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통계작성($F = 1.693$, $df = 2/101$, $p = .189$), 결핵관리($F = .050$, $df = 2/101$, $p = .951$), 기생충관리($F = .267$, $df = 2/101$, $p = .766$) 및 재해발생 건수에 관한 통계작성($F = 2.101$, $df = 2/101$, $p = .12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7)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도별 건강관리 실태

①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도별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chi^2 = 12.209$, $df = 2$, $p = .001$)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chi^2 = 14.780$, $df = 2$,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수건강진단 실시 적용정도($\chi^2 = 6.577$, $df = 8$, $p = .58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업장근로자의 의무실 이용실태 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6

조 동 란

본 연구는 산업장 의무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건강문제를 구체적 증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서울시내 1개 금융업체의 전체근로자 1,620명을 대상으로 1984년 1월 4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의무 기록부와 의무일시 처방전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실 이용률

의무실 이용자는 연간 1,47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91.3% 이었다. 연간 총 이용건수는 9,463건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5.8회의 이용률을 나타내었다.

이용자 1인당 이용회수를 보면 1인당 평균 6.4회이며 범위는 1회에서 78회이었다.

월별 이용률은 3월이 가장 높았고 1월이 가장 낮았으며,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가장 높고 토요일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더 높았고, 대체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무년수가 커질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임원이 제일 많이 이용하였다.

부서별로는 기능직이 사무직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